

大學間 協力體制 구축을 위한 세미나

劉 仁 鍾
(高麗大 師範大 學長)

大學間 協力體制 구축을 위한 세미나가 작년의 大邱세미나('84. 10. 27)에 이어 두번째로 지난 10월 25일에 全州大에서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는 大邱와 全州圈을 중심으로 대학간의 協力體制 구축의 具體的 代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학간 협력체제 구축의 方向을 탐색하기 위한 大邱에서의 1차세미나 때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發表와 討論이 있었다.

韓國大學教育協會 張仁淑 총장은 이 세미나의 개최사에서 “韓國의 大學教育은 量的 成長에서 質的 發展과 教育의 內質化로 전환하여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人的 및 物的 資源이 요구되는데 불행하게도 現在 우리의 실정은 教育財政의 영세성으로 인해서 인적 및 물적인 制限을 크게 받고 있다. 따라서 大學間 協力體制 구축을 통해 인적 및 물적 資源의 不足 현상을 극복하여야 하며 이 課題는 韓國 大學教育 發展의 切실한 과제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하면서 大學間 協力體制 構築의 當위성과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同 세미나에서는 서울대의 金鍾喆 교수가 “圈域別 大學間 協力體制의 實際와 改善方向”이란 제목으로 基調講演을 맡아 주었다. 金 교수의 基조강연에 이어 경북대의 夫光植 교수와 전북대의 崔東珪 교수가 “圈域別 大學間 協力體制 領域 및 期待效果”란 주제로 각각 大邱圈과 全州圈의 協力體制 方案을 중심으로 발표하였고, 전

북대의 羅東晉 교수와 경북대의 金鳳韶 교수는 “圈域別 大學間 協力體制의 制度的 措置 및 實行計劃”의 주제를 가지고 全州圈과 大邱圈을 중심으로 각각 발표하였다.

本稿에서는 同 세미나에서 발표된 基調講演과 主題發表, 그리고 주제발표에 따른 討論內容을 요약하고 이들에 대한 綜合評價를 가하고자 한다.

I. 圈域別 大學間 協力體制의 實際와 改善方向(基調講演)

金鍾喆 교수는 “大學間 協力體制는 高度의 自律性을 생명으로 하는 대학간에 있어서 教育課程의 운영, 研究機能의 수행, 資材와 施設 등의 활용, 情報의 交換, 人的 交流 등 갖가지 協同方法을 통하여 互惠의 相補關係를 촉진함을 의미한다.”라고 大學間 協力體制를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정의는 ① 大學은 教育, 研究, 奉仕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學問共同體요, 最高學府로서 저마다 自律性, 自主性, 獨自性을 유지하고자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점, ② 대학간에는 大學의 本質的 諸機能의 수행 및 그것을 지원·조성하는 과정에서 경쟁과 협력의 關係가 併存한다는 점, ③ 大學間 協力は 실로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추진될 수 있다는 점 등의 論理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金 교수는 大學間 協力體制에 관해서는 그 當爲와 實在, 理想과 現實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한국 대학의 폐쇄주의, 과열된 경쟁 의식, 개인적 이해 관계의 상충, 대학간 협력의 경험 부족과 그에 대한 인식의 미흡, 대학개혁에 대한 불신 풍조, 대학간의 질적 격차 등 다양한 요인의 작용을 協力體制 構築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大學教育에 있어서 秀越性, 效率性, 普遍性, 開放性 등의 諸原理에 비추어 보거나 先進諸國의 先例로 미루어 보거나 우리나라 大學發展의 새 突破口를 마련하기 위하여 大學間 協力體制의 구축은 시급한 과제의 하나임에 분명하다고 역설하면서 이 협력 체계의 실현을 위한 과제로서 다음 네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다.

첫째, 總·學長을 비롯하여 大學行政의 指導層에 속하는 분들의 대학간 협력의 必要性和 重要性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할 필요가 절실하다. 大學間 協力體制의 구축도 하나의 革新이요, 發展을 위한 중요한 정책 결정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이 분들의 새로운 인식을 토대로 한 政策決定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에 있어서 總·學長들을 위시한 大學行政의 指導層人士의 인식과 지혜가 중요한 관건의 요인이 되므로 이 분들의 大學間 協力の 必要性和 重要性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大學間 協力體制 구축과 그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체 내지 장치가 필요하다. 2개 이상의 대학이 참여하게 되도록 대학간 협력을 권장하는 기구나 조직체가 大學內部나 外部에 다같이 설치되어야 한다.

세째, 圈域內에서 實現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동프로그램의 槓型 정립은 물론 그 추진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방안을 구명하기 위하여는 대학간 協同研究를 통하여 代案이 제시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연구는 상당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네째, 教育行·財政面의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圈域別 大學間 協力計劃의 추진은 한국의 대학 발전을 위한 새로운 里程碑를 세우는 사업인 만큼 여건의 조성을 위하여 특별한 정책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韓國大學教育協議會와 文教行政當局은 이와 같은 하나의 示範事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측면적으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金 교수는 全州圈이나 大邱圈에서 大學間 協同事業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다면 그것은 한국 대학 발전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章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것은 兩地域의 大學關係人들에게 새로운 挑戰이 제기된 것임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 도전에 슬기롭게 대응하여 알찬 결실을 맺고 이어서 他地域에 대하여 示範의 役割과 기능을 수행케 된다면 그것은 지극히 보람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II. 大邱圈 大學間 協力體制의 領域 및 期待效果(主題發表 I-1)

경북대의 夫光植 교수는 그의 발표에서 ① 大邱圈의 特性, ② 協力領域의 선정 및 유형, 그리고 ③ 協力에 따른 기대되는 效果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夫 교수는 大邱圈에는 규모가 큰 綜合大學이 5個校가 있고 單科大學 4개와 專門大學 11개까지 합치면 20개의 高等教育機關이 있는데 이들



의 地域的 位置가 비교적 가까운 편이기 때문에 大學間 協力關係를 유지하는 데 바람직한 지역으로 그 特性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5개 綜合大學이 규모가 큰 데다 모두가 거의 동일한 學科를 설치하고 있어 同一分野間의 相互協力이 우선적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協力關係를 시발로 하여 大邱地域의 모든 대학에 擴散시켜 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협력의 領域도 지난 大邱세미나에서 고려대의 劉仁鍾 교수가 제안한 8개 영역을 대상으로 하여 短·長期事業으로 구분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協力の 領域選定은 각 학교별로 單科大 水準, 學科 水準에서의 협력의 希望領域에 대한 파악이 先行되어야 하고 또 이를 위한 協力當事校끼리의 각 分野別 事前協議가 이루어지는 것이 소망스럽다고 말하면서, 大邱地域의 경우 單科大學 水準에서의 協力體制는 3개 醫科大學의 경우가 가장 典型的인 示範事例로서 구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協力體制의 추진 유형이란 측면에서 夫 교수는 多校間 協力體制로 출발하는 것보다 二校間 協力體制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大邱地域의 경우 선정된 2개 학교간의 協力體制로부터 출발하여 5개 종합대학간의 협력 체제로 그리고 大邱所在 全大學으로의 점진적인 확대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夫 교수는 기대되는 효과로서 교육의 효율성, 교육제정의 절감, 大學間的 균형 발전 등을 一般的인 效果로 들었고, 이 일반적 효과는 協力 領域別로는 여러 가지 具體的인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끝으로 夫 교수는 韓國大學教育協議會가 大邱地域을 大學間 協力體制 構築의 示範地域으로 선정하게 된 것은 타당한 판단이라고 지적하면서 大學間 協力體制의 수행을 위해서는 大學의 폐쇄성과 보수성 같은 저해 요인의 除去는 물론, 學園의 安定 역시 질실한 것 같다고 결론을 지었다.

夫光植 교수의 발표에 대한 論評에서 大邱大의 金仁煥 교수는 “大學間的 協力關係 증진을

통하여 敎育의 效率性을 높이고 大學의 發達을 촉진시켜 보자는 구실 아래 大學間 協力體制의 구축 사업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보다 더 具體化된 실행 계획의 수립을 위한 참으로 긴요하고 또 가치로운 일이다.”라고 전제하면서 夫 교수의 論旨에 대하여 원칙적인 찬성의 뜻을 표하였다.

그러나 협력 체제의 實行面에서 그 意見을 달리고 있다. 즉 夫 교수가 제안한 2個校의 協力體制에서 5個校 그리고 全大學으로의 점진적 확대를 제안했는데 이는 大學間 協力이라는 차원에서는 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部分化를 초래하여 一般的인 協力體制 구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니 全大學을 대상으로 하여 協力事項을 中心으로 事項別로 自由롭게 참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大邱圈의 경우는 교수의 교류, 共同研究 및 情報交換, 도서관 및 연구시설의 共同利用 등 여러 가지 면에서 自然發生的인 협력 관계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協力體制가 가장 먼저 구축될 수 있는 적합한 分野가 醫科大學임을 金 교수는 지적하고 있다.

경북대의 朴鍾烈 교수는 夫 교수가 제시한 大學間 協力體制의 領域과 效果를 총체적으로 볼 때 현실적이고 점진적이며 실효성을 밑바탕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찬동하나 夫 교수의 제안은 短期的 協力體制에 집착한 감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現代社會가 多樣化, 開放化 및 情報化 時代로 변화되면서 지역간 거리가 좁혀지고 있고 컴퓨터의 발달로 정보의 교환도 신속해지고 있다. 따라서 大學이 社會發展에 뒤떨어지지 않고 高度技術情報社會를 선도하려면 무엇보다도 大學 社會 자체가 高度技術情報化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대학에서 배출된 人力이 社會를 이끌어가는 變化促進者 役割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大學間 協力體制는 대학사회의 高度技術情報社會化를 지향하는 方向에서 長期的·短期的 領域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고 朴 교수는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視角에서 朴 교수는 大學間 協力體制의 可能領域을 대학의 기능별로 細分化하여 다

음 여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이 영역을 중심으로 長·短期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① 敎授·學習活動, ② 研究活動, ③ 獎學·福祉活動, ④ 社會奉仕活動, ⑤ 行·財政運營, 그리고 ⑥ 敎育與件造成 등이다.

끝으로 朴 교수는 大學의 협력 관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협력체계의 영역은 대학의 사회적 要求와 大學의 機能을 확대해석하여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위의 6개의 기능별 영역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Ⅲ. 全州圈 大學間 協力體制的 領域 및 期待效果(主題發表 I-2)

전북대의 崔東珪 교수는 ① 全州圈 大學 및 地域社會의 特徵과 ② 全州圈 大學間 相互協力的 地域으로 구분하여 발표하였다.

全州圈에는 15개의 高等教育機關(종합대학 3개, 단과대학 4개, 전문대학 8개)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全州를 중심으로 裡里, 群山의 3개市에 집중되어 있다. 崔 교수는 大學間 協力體制의 一次的인 대상이 되는 4年制 大學의 一般의 特徵으로 ① 大學間에 규모의 차이가 심하다는 점, ② 歷史에 있어서 차이가 크다는 점, ③ 大學院의 設置狀況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점, ④ 대부분의 大學이 교수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 ⑤ 한 大學에만 개설되어 있는 전공 영역이 많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全州圈 大學의 特徵은 大學間 協力的 영역과 범위를 크게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

大學間 協力問題와 관련된 全州圈 地域社會의 特徵으로 否定的인 側面과 肯定的인 側面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전주권은 산업과 고용 구조가 一次産業에 편중되어 있어 한국 농촌사회의 두드러진 특징인 傳統志向性이 강하여 개혁에 대한 否定的 태도 유발의

협력체 구축을 위한 세모

교육협의회 // 후원: 전주대학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긍정적 측면으로는 大學間의 거리가 비교적 가깝기 때문에 相互協力的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崔 교수는 協力的 영역으로 ① 學點交流, ② 敎授交流, ③ 敎授·學習資料의 共同開發, ④ 共同論文集 발간, ⑤ 도서관의 相互協力 등 5개 영역을 들고 있으며 그 중 교수 교류, 교수·학습자료의 공동개발, 공동논문집 발간, 도서관의 상호협력 등의 영역에 대한 協力體制的 실현은 시급한 과제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학점의 교류는 大學間의 質的 격차, 학점 평가기준의 불균형, 수업료 징수 방안의 차이 등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는 領域으로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崔 교수는 全州圈 大學間 協力體制的 계획적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地域大學 協力調整委員會의 구성, 實務者 中心의 협력 영역별 小委員會의 구성, 總·學長으로 구성되는 諮問委員會의 구성, 소위원회 활동 기금을 문교예산으로 확보하여 줄 것 등을 제의하고 있다.

崔東珪 교수의 발표에 대한 論評에서 全州又石大의 金東淵 교수는 崔 교수의 전주권 대학간 협력 체제에 대한 領域과 그 接近方法에 대하여 크게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崔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全州地域의 特性은 大學間의 異質性과 지역사회의 傳統志向性이 크므로 대학간의 學點交流는 共通點이 많은 大學과 領域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

였다. 특히 전주권內의 대학들은 그 규모에 있어서나 設立者, 設立年度, 設置學科의 數, 교수와 학생수 등의 諸側面에서 상당한 異質性을 내포하고 있어 비교적 同質性을 갖춘 他地域의 協力體制 條件보다 制限要因이 많으므로 이들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끝으로 金 교수는 전주권의 大學間 協力體制의 實現을 위해서 韓國大學教育協議會 산하기구로서 地域協議會를 설치·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中央大의 柳基燮 교수는 崔 교수가 열거한 협력 영역은 협력을 위해 검토해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부분이 망라된 것으로 생각되며, 이들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도 大部分 의견을 같이 하면서 大學間 協力の 成敗에 가장 기본이 되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協力에 대한 大學當局 또는 大學運營者의 意志이다. 이 사항을 추진하는 때는 대학당국의 行政的 및 財政的 支援이 必須要件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事務的 節次가 원활하고 協助的이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大學에 있어서의 사무 절차가 경직되고 까다로운 경우는 協力の 과정에서 熱意가 식고 士氣가 위축되어 일을 추진할 氣力을 잃고 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비교적 역사가 길고 규모가 큰 大學에서 넓은 아량을 보여 주어야만이 사업은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大學間的 協力を 통해서 이 같은 大學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많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즉 각 대학에서는 近視眼的인 打算을 떠나 넓은 아량으로 이 사업에 임해야 할 것이다.

柳 교수는 이상의 몇 가지 成敗의 사항을 제시하면서 崔 교수가 열거한 協力の 領域 중 圖書館의 協력이 가장 실현성이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IV. 全州圈 大學間 協力體制의 制度的 措置 및 實行計劃(主題發表 II-1)

전북대의 羅東晉 교수는 ① 全州圈 大學間 協

力の 實態分析, ② 大學間 協力에 대한 教授의 態度分析, ③ 大學間 相互協力體制의 發展을 위한 制度的 措置 등으로 구분하여 발표하였다.

羅 교수는 전주권의 大學間 協力에 대한 實態分析에서 全州圈 대학간에는 同一 또는 類似學科間的 산발적 學術交流, 學會活動의 협력, 研究所 또는 個人的 次元의 協同研究, 論文指導 및 審査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相互協力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모두가 단편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하고 있다.

大學間 協力에 대한 教授들의 태도는 매우 긍정적이고 결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교수들은 소속된 대학의 設立別, 規模別, 專攻領域別에 관계 없이 學點交流, 教授·學習資料의 共同開發, 圖書館의 開放交流, 시설의 공동 활용 등 모든 대상 영역의 相互協力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羅 교수는 끝으로 大學當局, 韓國大學教育協議會, 그리고 政府는 大學間 協力體制의 發展을 위한 基礎研究와 協力體制 維持에 필요한 行·財政的 뒷받침을 계속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全州地域 각 대학의 교무처장을 포함한 3~4人的 교수로 구성되는 大學間 協力 調整委員會를 설치 운영하고 그 밑에 領域別 小委員會를 두어 協力の 具體的 實踐方案을 마련토록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위 위원회와 원활한 기능을 위해서 각 大學의 總·學長으로 구성되는 諮問委員會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羅東晉 교수의 發表에 대한 論評에서 전주대의 金千崙 교수는 大學間 協력이 대학의 발전과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지만 이를 잘못 활용하여 大學發展과 學問發展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면서 大學間 協力體制의 實踐에 대한 否定的인 側面만을 주로 지적하였다. 예컨대 學內에서의 學點交流도 되지 않고 있는 現時點에서 大學間的 交流는 어렵다는 것, 教授交流의 명분 아래 교수 부족 현상을 메꾸는 方便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등을 들면서 大學間 協力體制 實踐의 어려움을 주장하고 있다.

金 교수는 대학간 협력 체제보다 學會의 支會 活動이 먼저 活性化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學會의 學問交流를 할 수 있는 協議體를 설치하고자 제안하였다.

한편 崇田大의 都甲守 교수는 羅 교수의 敎授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비판하면서 “大學間 交流의 主體는 學校이나 그 대상은 학생과 교수들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이 제도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가 하는 점이 교수들의 생각이나 學校行政 次元에서의 制度的 設置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도 병행하였으면 바람직하였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都 교수는 또한 全州圈의 보다 具體的인 實踐 모델이 나왔으면 하는 아쉬운 감이 있으며 學點의 交流는 제도보다 學生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力點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V. 大邱圈 大學間 協力體制의 制度的 措置 및 實行計劃(主題發表 Ⅱ-2)

경북대의 金鳳韶 교수는 大學間 協力體制의 必要性이 이미 다른 先進國에서는 그 실행에 있어서 肯定的인 效果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부분적으로는 大學間 協力體制가 이룩되어 실시하고 있으며 그 효과가 인정되어 점차 확산될 기운이 되어 가고 있다고

진제하면서 大邱圈 大學間의 協力體制 構築의 具體的인 方案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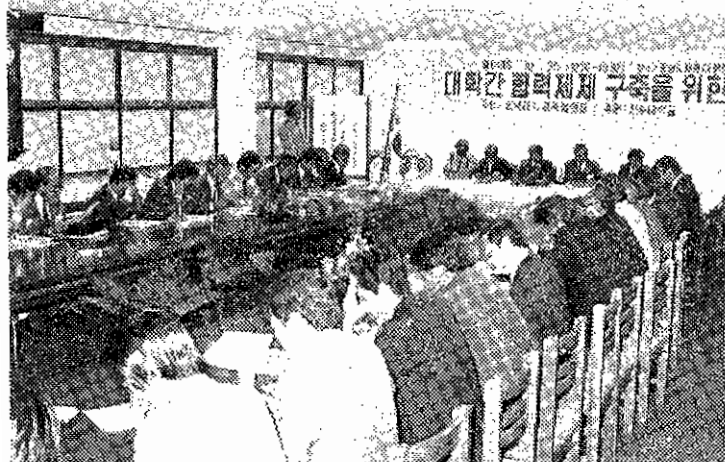
大邱圈 協力體制의 구체적 영역으로서 金 교수는 ① 敎育課程의 運營과 學點交流, ② 敎授의 相互交流, ③ 圖書, 雜誌 및 敎구, 敎材의 공동 구입과 공동 활용, ④ 學事行政의 共同計劃 및 相互情報交換, ⑤ 共同研究, 共同發表, 合同세미나 및 講演會의 개최, 그리고 ⑥ 大邱圈 敎育施設의 공동 설치 및 共同活用 등을 열거하고 이들에 대한 比較적 具體的인 實踐方案을 제시하였다.

이들 각 領域의 協력을 具體的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7個項의 制度的 措置 및 行·財政的 支援이 필요하다고 金 교수는 주장하였다.

즉 ① 대구권 대학간 協力委員會의 구성과 이를 위한 法的·行政的 조치 취할 것, ② 學點交流의 實行에 장애가 되는 관계 敎育법 시행령의 개정 보완, ③ 學點當 등록금제의 실시, ④ 도서관 운영의 협력 체제를 위한 법적 및 행정적 조치, ⑤ 교수의 交換活動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조치, ⑥ 韓國大學敎育協議會에 協力體制의 실현을 위한 지원을 전제로 한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할 것, ⑦ 大學敎育의 評價基準에 大學協力事項을 반영할 것 등이다.

계명대의 李源周 교수는 주로 경북대 金 교수의 發表內容을 보완하는 면에서 논평하였는데 論評의 요지는 ① 學部水準의 學點交換은 계절 학기부터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② 도서관의 공동 활용을 위해서 일차적으로 도서 분류 형식을 統一할 것, ③ 大邱圈에 大學協力委員會와 目的別 小委員會를 두되 전담 사무국을 설치할 것 등이다.

끝으로 李 교수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로서 대구권의 大學들은 진지하게 學問的 發展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으며 이 大學들이 결국 그 地域社會와 國家에 봉사한다는 사실을 깊이 통찰하여 相互協力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세대의 韓宗哲 교수는 金 교수의 發表에 ① 大邱의 協力體制의 必要性에 대한 실증적 자료 제시, ② 協力體制 실시에 따른 否定的인 側面과 副作用에 대한 대처 방안, 그리고 ③ 協력을 위해서 각 大學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要件의 제시 등이 포함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표명하였다.

한편 韓 교수는 協力體制의 成功的인 수행을 위해서 大學人 스스로의 자발적 협력 체제의 구성, 協力內容에 대한 우선순위의 결정, 大學內의 開放的·學問的 風土의 造成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Ⅵ. 綜合評價

세미나에서 발표된 基調講演, 主題發表, 그리고 論評에서 나타난 내용을 中心으로 다음과 같이 종합평가를 할 수 있다.

첫째, 기조강연, 주제발표 및 논평 등 전체 세미나의 흐름에서 大學間 協力體制의 必要性和 當위성이 크게 인지되고 있으며, 羅東福 교수는 교수의 의견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이에 대한 실증적 근거까지 제시하였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大學間 協力體制의 實現을 위한 具體的인 方案과 節次에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둘째, 本 세미나의 흐름은 大學人(教授, 學校 當局 등)과 교육정책 당국이 공히 大學間 協力體制의 구축에 대한 態度的 變化와 意志가 절실함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진지성을 가질 것을 要求하고 있다.

셋째, 大學間의 協力體制는 대학의 自律性을 바탕으로 하되 점진적이고 실현이 가능한 영역부터 출발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지되고 있다.

넷째, 대학간 협력 체제의 실현을 위해서 大邱地域과 全州地域에 大學間 協力 委員會(또는 大學間 協力 調整委員會)와 領域別 小委員會를 조속히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다섯째, 大學間 協力體制의 실천과 관련해서 韓國大學教育協議會의 役割을 기대하고 있으며 教育行政當局의 行·財政的 支援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여섯째, 大學間 協力體制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 각 대학은 協力에 대한 意志와 더불어 봉사 정신이 크게 요청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예컨대 비교적 歷史가 길고 규모가 큰 大學에서 넓은 아량을 보여 주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중요시하는 태도로 協力에 임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다.

일곱째, 本 세미나에서 발표되고 토론된 內容은 작년도의 大邱세미나에 비해서 보다 진전되고, 보다 구체적이고, 實踐에 가까운 것이었다.

따라서 大學間 協力體制의 實現에 밝은 展望을 보여 준 세미나라고 평가할 수 있다. *